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4.17.(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위원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구종상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4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사 답변후 다음 위원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연합뉴스 TV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지난 달과 달리,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3월 이후의 클립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다시보기 활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 개선 사항, 유튜브 채널에서 현장연결, 속보, 일반 뉴스 썸네일의 글자색을 다르게 표현한 점이 효과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더 눈에 띄고,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좋은 클립은 '썬속뉴스'인데, 사람들의 관심을 잘 끄는 주제로 선택된 것 같습니다. 다만, 조회수를 목적으로 자주 업로드할 경우 '사이버랙카'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히 활성화하는 것이 유튜브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의 질 향상, 지난 번과 달리, 대안 부분을 언급하는 뉴스거리가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남기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안까지 제공해주어 시청자들이 뉴스에 대해 큰 의문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만에 많은 부분이 발전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의 주제(초소형 위성 진주셋)는 여전히 흥미롭고, 뉴스의 질과 홈페이지 구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잘 유지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대부분 격려성 언급을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답을 드릴건 없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모바일과 PC에서 저희 새로운 버전의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낡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구독자와 시청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초 정도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본 채널 말고 서브 채널을 지금 하나 런칭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다큐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다큐들을 새롭게 편집을 하고 재가공하고 새로운 것도 좀 추가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서 이것도 이번 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은수 부위원장님께서 서브 채널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

- 선거 보도 준칙 제정 필요,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이 돼서 선거 열풍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시즌이 되면 여야에 서로 입장 차가 다른 패널들이 나와서 회사의 생각하고 다른 이 코멘트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선거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출연자 이름의 정확성 확인 필요, 사람의 위치와 무관하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 발견했습니다. 사람 이름 밑으로 이름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이름을 삭제하는 시간과 횟수도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특징인은 오랜기간 등장하고 또 다른 특징인은 금방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객관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산불기간 연예뉴스는 자제 필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청률을 고려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연예인 김수현 보도는 자제하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으로서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선거 보도 준칙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도채널이고 특히 정치관련 뉴스, 대담을 많이 다루는 그런 방송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널추천 위원회를 회사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널 위에서 패널을 중립적인 면에서 일단 여야 균형에 맞는 패널을 추천을 하고 또 그 패널들에게 항상 여러 가지 발언의 수위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게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 패널 출연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선 때는 더욱 이런 공정한 대담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선거 보도 준칙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선거 보도 준칙이 사실상 살아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보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출연자 네임택 위치 조정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조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 이름이 영뚱한 데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바로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산불이 났을 때 저희가 사실은 연예 보도를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그때 워낙 산불이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연예인 기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지자체와 잡혀 있던 여러 가지 행사 기사들 그리고 그때가 축제들이 많았는데 각종 축제와 관련된 캐스터, 리포터 이런 것들을 전부 줄이고 국가 재난방송 수준으로 임했는데 김수현 씨 기사는 워낙에 관심을 많이 끄는 기사여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 재난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특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의성 안동 산불사태보도 관련하여, 금년 발생한 산불 사태는 우리나라 최대 산불 사태인 대형 재난사건이라 산불사태 보도(티비채널 23,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하여 여러 날 여러 시간에 걸쳐 산불사태를 시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조선시대 고택 사수, 하회마

을 지키기등 시민참여 의식. 낡은 헬기로 담수량 수송 부족, 드론 무인로봇 최신장비 필요성, 단비로 인한 어느 어른신의 눈물겨운 인터뷰 장면, 유해가스로부터 눈보호를 위한 렌즈 대신 안경착용 언급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정보등입니다. 사태의 실상 및 규모 소개, 문제 원인에 필요한 정보, 해결방안 모색에 적합한 접근으로 산불사태의 심각성, 시민들의 의식, 관련 기관의 책임, 관련전문인들의 해법 등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사건 보도 기사를 접하면 상대를 향한 지적과 불만을 자극하여 실상에 대한 진실성을 찾기 어려워 여러 채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사태 보도는 재난방송 보도의 역할과 보도의 진실성, 감성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이번 기회에, 지난 재난 방송 하시느라 연합뉴스TV가 수고 많았는데 시청자 위원회 일동으로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회의참석자 : 짹짹)

▲ 신지홍 보도본부장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불을 한 2주 정도 취재하면서 거의 매일 하루에 10팀 정도 그 지역에 상주를 했습니다. 10팀이라는 건 취재 기자 1명, 카메라 기자 1명 해서 20명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한 번씩 거기다 3박 4일 정도 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상주하면서 열팀이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취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도국장을 맡았던 2년 반 전 이태원 참사가 굉장히 컸던 재난이 하나 있었고요. 그 이후로 가장 컸던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든 취재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기자들이 현장에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전달하고 시시각각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고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시청자 눈에는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광석 위원

- [다다를 인터뷰] 산불이 휩쓴 자리, 나눔으로 덮다...희망 싹틔운 의성의 기적, 2025-03-30 최근 발생한 경북 의성지역 산불에 따라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 경찰, 자원봉사자를 위해 의성지역 커피(샌드위치)가게를 하시는 분과 추어탕 집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본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커피(샌드위치포함)와 추어탕을 무료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커피(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은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본인의 작은 성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엿보이는 프로그램이었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8년 만의 연금개혁 후폭풍...“우리만 독박” 청년층 거센 반발, 2025-03-29 18년 만의 여야합의된 연금개혁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금개혁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금개혁을 진행 중인 일본, 스웨덴, 독일의 사례를 보도한 것은 연금개혁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세대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연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2030 청년층의 불만과 국회에서 그들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3040국회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연금개혁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들, 즉, 저출생, 정년연장문제, 초고령사회진입 등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보도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이번에 산불 나면서 일반 TV채널을 통해서 직접 뉴스를 재난 소식을 전하는 거 외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들을 좀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다다를 인터뷰'였고 또 '썬속뉴스'라고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강아지들이나 동물들이 구조가 못 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희가 직접 구조에 참여하기도 한 그런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좀 재난 현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다를 인터뷰'는 제목 '다다를'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품고 있는데 다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다 다르다라는 뜻이 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만든 인터뷰 코너명입니다. 이게 저희가 유튜브에서 가장 저희 대표적인 코너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금개혁 관련은 이렇게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완전탐사 보도는 아니지만 준탐사 보도의 성격을 가진 저희 코너입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다뤘고요. 앞으로도 저희 연합뉴스TV는 이슈를 발굴해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순 위원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고에 사과..."재발방지 최선", 2025.4.8. 아워홈은 지난 4일 용인 공장에서 한 직원이 근무 중 끼임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사흘 만에 사과했으며 어제(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재해직원.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할때 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기업의 안전사고(SPC 등)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피드백,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겠으며,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혁신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등 연합뉴스TV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안전 문제 관련 특히, 기업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큼니다. 제가 보도국장을 할 때 겪었던 일인데 저희가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이제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안전 사고였어요. 23살짜리 청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건설사가 굉장히 큰 건설사인데 보상 같은 걸 전혀 안 해주고 그냥 장례식장에 돈 100만 원만 보상해 주고 이제 끝내려고 했던 사안인데 피해자측 지인들이 저희 회사에 제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리포트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보상을 다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언론 보도가 사실은 기업 안전 이런 문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른 수단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 들의 어떤 처한 상황 들을 보호해 주는 필요는 있겠지만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저희도 언론 입장에서 관용 없이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캠페인 등을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18년 만의 연금개혁 후폭풍...“우리만 독박” 청년층 거센 반발,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추진하게 되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상반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코자 한 동 프로그램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금부담률은 높아지는 반면 향후 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큰 청년세대, 학계 의견, 일본·스웨덴·독일 등 타 선진국 연금개혁 사례 등을 취재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연금개혁은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지급액, 수급 연령 조정 등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타 연금과의 연계 등 노후소득 보장 및 기금안정화 도모 등 향후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줬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연금보험부담률 인상과 지급시기 지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의 문제 해결방안과 병행해서 다뤄야 할 난제 중 난제입니다. 18년 만에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일할 청년들 어디 갔나...‘그냥 쉬었음’ 50만명 첫 돌파, 역대 최저 출산율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구직 활동 포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 포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동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청년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과 달리 청년층은 IT,금융, 고급 서비스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업종간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규 업종 발생에 따른 교육시스템 변화의 미흡 등 현재 구인구직간의 미스매치 원인과 해결방안도 매우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종으로 청년 모두가 취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81%가 취업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므로 청년 실업(자발적 실업 또는 비자발적 실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취재가 빠져있어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들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청년채용지원금 등 중소기업 청년취업장려금 지원제도 등에 대한 내용까지 취재를 했더라면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 리부팅 지방시대 : 휴게소의 혁신, 과거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주유, 화장실, 간단한 식사를 위해 들르던 휴게소가 지금은 쇼핑몰, 휴게소 내 회의실 운영, UAM체험, 전망 좋은 핫플레이스 카페 및 맛집 등으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면서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컨셉은 기발하고 색달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유통기업들의 지방 진출 시 해당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급감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폐업 속출로 이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대기업 또는 대기업 자회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게소의 혁신

이 지방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리부팅 지방시대> 기획 의도와는 다소 맞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동 프로그램이 지방소멸시대에 다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 <리부팅 지방시대> 기획 의도에 부합하려면 휴게소 직원은 지역 우선 채용, 휴게소 먹거리 재료는 그 지방 로컬 푸드만 사용 등 휴게소와 지역이 상생 협력하는 사례까지 포함됐더라면 <리부팅 지방시대> 기획의도에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연금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외국 사례 같은 것을 조금 많이 우리가 찾아보고 거기에 직접 취재진을 보내가지고 외국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좀 넓혀가지고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국내에서만 사실은 이걸 숫자 가지고 보여주면은 시청자의 주목을 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직접 외국을 나가서 찍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이구요.

- 청년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또 언론에서도 과연 이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에 여론실태조사 같은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런 걸 가지고 근거로 우리가 뭘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좀 들고요. 우리 경제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쉬는 청년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3분짜리 리포트나 '뉴스프리즘' 한 회분으로 다루지기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고용 구조를 다루는 좀 더 근본적인 기획 프로그램이나 '뉴스프리즘'을 통해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리부팅 지방시대' 휴게소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자체는 재미있었습니다. 이 사안도 이게 좀 새롭고 저도 이 휴게소를 지방과 엮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나름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리부팅 지방시대'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한계가 있는 코너예요. 저희가 지자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완전히 창의적으로 만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서연 위원

- "북한군, 또 군사분계선 침범", 북한 관련한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분이 북한 뉴스 보도를 많이 하셔서 검색하여 보니, 북한이탈주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기자분이 북한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각종 보도를 자연스럽게 심도있게 취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합니다.

- 다다를 인터뷰, 산불이 휩쓴 자리, 나눔으로 뿔다.. 희망 싹틔운 의성의 기적, 의성에서 산불 보도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다를 인터뷰에서 의성에서 소방관,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추어탕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에 관한 취재를 하여, 화재 상황에서도 일상은 지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재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상적이었습니다.

- 한 대행 트럼프 통화, 상호관세 파고 속 협의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의 통화 이후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취재가 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SNS, 조현동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강화 확인, 미국에 방문한 미국에 방문한 통상본부장 등의 발언 등의 보도도 의미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보도할 수 있는 내용 이외에 미국 특파원으로서 미국 현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우리 지성림 기자가 쓴 기사 보시고 각별하게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지성림 기자가 북한이탈 탈북주민이었습니다. 이쪽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전문 가입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기사를 쓰고 있고 방송 각사 보면은 한 명 정도씩 탈북 기자들이 있는데요. 주요 언론사들이 다들 이쪽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발군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 전해드리겠습니다.

- '다다를 인터뷰'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이런 어떤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류의 기사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현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해봤는데요. 워싱턴이라는 데가 정말 취재의 넘사벽 같은 곳입니다. 정말로 취재가 힘들어요,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과 한 번 연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요 저도 3년 있으면서 딱 백악관 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컨택이 잘 안 되고 취재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정호윤 기자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보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관세 문제라든지 또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미국과 어떻게 외교를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잘 파악해가지고 좋은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 백명희 위원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이슈, 싱크홀 같은 인재로 인한 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대형 산불 이런 게 이제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장잇슈'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현장잇슈] 거센 화마 덮치는데 쇠목줄은 1미터...잿더미 속 동물 구조, '매뉴얼'은 없었지만 2025-04-07, 역대 최악의 산불. 인명피해도 컸지만 동물 피해도 컵니다. 개사육장에 화마가 덮쳐 대부분 타 죽고, 남은 20여마리도 불에 그을려 민간동물 구조단체에서 치료를 위해 임시 동물 보호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현장에는 다친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 소, 닭 등 응급을 요하는 상태인 동물들도 많다고 합니다. 민간 동물 구조단체인 '코리안독스' '도로시 지켜줄게' '코리안K9레스큐' 외에도 '국경없는 수의사회'에서도 나서서 동물 구조 및 치료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니 정부, 지자체에서도 뒤늦게 민간단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 지자체는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만 해도 급급할 것이라 동물 구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 취재 내용을 통해서 민간 동물 구조단체가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경없는 수의사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사유재산이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동물들의 피해도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나마 '재난상황 동물구조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

했는데 이 매뉴얼이 실제로 만들어 지는지 향후에도 후속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동물 구조 관련 콘텐츠는 저희가 유튜브용으로 제작한 콘텐츠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산불과 관련한 콘텐츠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동물을 구조 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아지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게 사유재산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물 구조 단체랑 병원애다가 신고만 하고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재난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도 피해갈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콘텐츠였습니다. 흥미 위주의 단발성 보도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재난상황 동물구조 매뉴얼' 수립 과정에 대한 후속 취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 목탁 쿠키번뇌 닳는 수건..Z세대 사로 잡은 '불교 굿즈', 이유는? 2025-04-03, 부처도 솜사탕 들고 웃습니다...불교가 '힙하다' 2025-04-05, MZ세대 사로잡은 재밌는 불교...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인기 2024-04-07,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대한 시리즈 형태의 기사로 각각 인터넷 기사, 일반 영상 기사, 현장 연결 기사로 구성되어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좋은 기사였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종교라는 주제가 무겁고 딱딱하게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으며, 기사 제목에서부터 트렌디한 감성을 강조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공적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용 기사 형태라 행사의 모습이 다소 딱딱하게 구성된 점이 아쉽게 느껴졌고, 현장 연결 기사에서는 스님에 대한 인터뷰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유사 보도에서는 행사 참여자들의 체험 장면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보다 생동감 있게 화면을 구성하고, 흥미 요소를 가미한 유튜브용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4월 4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보도 시,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모두 중간에 연결이 끊기고 재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오류는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로 특히, 탄핵 관련 보도와 같이 중요한 시사 뉴스의 실시간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저하시키며, 타 채널로의 전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연결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흔히 이제 언론사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거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 문제를 다루면은 개신교 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가톨릭이나 이쪽에서도 그래서 가급적 종교 문제는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불교가 약간 대중화 쪽으

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뉴스로 취급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가끔씩 불교박람회라든지 MZ세대한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현장 연결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도 그런 일환으로 된 거고요. 나름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튜브가 기술적으로 끊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방송에서 어떤 이런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말 그대로 방송 매체의 신뢰성 저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저희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심사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편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무엇이 문제였나(4.5.), 이번 뉴스프리즘을 시청하며 대형 산불의 심각성과 그에 비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응체계의 현실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보도를 통해 언급된 두 가지 방안, 임도의 확충과 첨단 장비의 도입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임도의 부족은 산불 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장비가 산속 깊숙이 진입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구조적 문제는 피해의 대형화로 직결됩니다. 전국의 산림 상황과 지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임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불 대응 장비의 노후화는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감지 드론, 원격 조종 무인 진화 시스템, 산불 대응 전용 헬기 등 최첨단 장비의 적극적인 도입은 불길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들여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처럼, 산불은 더 이상 계절성 재난이 아닌 일상 속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산불이 일어난 후에야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준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문제들이 공론화되어 빠르게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보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좀전에 산불 문제에 대해서 현장 보도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준탐사보도 성격인 '뉴스프리즘'에서 간단하게 다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체계적인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 건지 대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합뉴스TV 스페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